

김유광 총재특별대표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두 딸과 만사위, 새서울로타리클럽 입회
패밀리 투게더 슬로건 동참,
9월 월례회의 참석, 신입회원 환영식 가져



9월 15일 월례회의에 신입회원 환영식을 함께한 김유광 총재특별대표와 자녀들.

김 유광 총재특별대표(새서울RC 전회장)이 2명의 딸과 사위가 함께 지난 8월, 새서울 로타리클럽(회장 이 정수)에 입회하였습니다.

1993년 입회하여 24년을 넘게 로타리클럽을 통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김유광 총재특별대표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들 또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3650지구의 2017-18년도 이순동 총재의 핵심전략인 'Family Together' 라는 슬로건 아래, 구체적으로 두 딸과 만사위에게 세계적인 봉사단체인 국제 로타리클럽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그 뜻을 받아 새서울 로타리클럽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아 회원과 김정연 회원, 이형용 회원은 8월중 새서울 로타리클럽 주회에 참석하여 입회식을 가졌으며, 9월 15일 개최된 9월 월례회의에 신입회원 환영식에도 김유광 총재특별대표와 함께 참석하여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로타리 정신으로 지구 발전에 항상 앞장서주는 김유광 총재특별대표와 새롭게 입회하신 가족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월 20일 총재공식방문 주회에서 입회한 회원들과 함께.
(왼쪽부터) 최인훈 회장, 김진옥·이영옥 회원, 이순동 총재, 도승연·유영선 회원, 이우식 직전회장.

서울삼청로타리클럽 회장과 직전회장 부인 2명 입회, 부부회원 세 커플로!

신입회원 총 6명 영입, 젊은 세대-여성-배우자 중심으로 회원 늘려

회원순증 25%라는 지구 목표를 넘어선 클럽이 드문 가운데 서울삼청로타리클럽(회장 최인훈)이 그 첫 테이프를 끊었다. 더욱이 부부회원 영입이란 새 전형을 먼저 보여주어 화제다.

“마침 총재님의 Family Together 방침과 맞아 떨어져서 부부회원부터 시작하게 되었지요.”

우선 영입 가능한 배우자부터 입회토록 하자는 생각에 최인훈 회장의 영부인 이영옥(안중근의사기념관장·성균관대 명예교수) 여사, 그리고 이우식 직전회장의 영부인 김진옥(올라이트라이프(주) 대표이사) 여사를 영입하게 됐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15년 전쯤일 거예요. 조상호 전회장과 현재 총무를 맡고 있는 유승희 교수께서 이미 부부회원으로 계신 사례가 있었지요.”

그러니 삼청로타리에는 이미 세 쌍의 부부회원이 있는 셈이다. 그동안 회원 부인은 등산모임, 주회 강연 등에 참석해 친분을 쌓아왔고, 부인이 강연자로 초대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주회 출석률에 유연성을 주면 앞으로 더 참여할 부인 회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두 쌍의 부부회원이 입회한 지난 9월 20일 총재공식방문 주회에서는 유영선 한국인슈로산업(주) 대표이사와 도승연 광운대 교수 등 두 명의 여성회원이 함께 입회식을 가졌다. 뒤이어 장석연 글로벌 디아스포라 다문화 코칭네트워크 이사(목사)가 들어와 5명의 여성회원이 들어오게 되었고, 같이 입회한 김종국 특허법인 아이퍼스 부대표(변리사)까지 삼청로타리는 총 6명을 새 회원을 맞아들였다.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회원, 그리고 여성회원, 젊은 회원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최인훈 회장은 Family Together의 개척자다.